

블룸의 욕망 추구를 통한 조이스의 아일랜드 성도덕 비판

김 은 혜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그의 작품 『율리시스』(*Ulysses*)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념적 힘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억압적인 성 문화에 대한 그의 비판 의식은 매우 파격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그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나 가톨릭 뿐 아니라 이들이 영향을 끼치는 성 문화도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한다고 보았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아일랜드는 민족주의, 빅토리아조의 청교도적 금욕주의, 사회 순결 운동(The social purity movement), 그리고 가톨릭이 뒤섞여 지나치게 순결성과 성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적으로 매우 억압된 양상을 띠는 사회였다. 민족주의나 사회 순결 운동 단체는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의 도덕적 우수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영국을 아일랜드의 순결성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아일랜드에서 영국의 외설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성모 마리아’나 ‘가정의 천사’를 완벽한 여성상으로 제시하며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구 표출을 억압하였다. 대표적으로 ‘더블린 백십자 자경단’(Dublin White Cross Vigilance Association)은 독실한 개신교 통합주의 단체로

스스로를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순결을 사랑”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아일랜드의 대중들은 성적 주제를 다루는 서적 또는 “부도덕한 삶”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인쇄물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가톨릭교도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아일랜드 자경단’(Irish Vigilance Association)이 ‘더블린 백십자 자경단’의 임무를 인계받음으로써, 아일랜드 정화 운동의 주체는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바뀐다. 이 단체도 역시 “영국의 추잡한 출판물이 아일랜드의 정신을 계속 해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ullin, “English Vice” 70).

아일랜드의 단체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종교 가톨릭 자체도 모든 성적 욕망은 인간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성적 욕구에 대한 죄의식을 심어 준다. 엘만(Richard Ellmann)에 따르면 조이스가 “자신의 인생을 소설화”한 작품이며(149) 조이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는 과정과 상응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는 욕망을 죄악시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널 신부(Father Arnall)의 죽음, 심판, 천국 그리고 지옥에 관한 설교는 사창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스티븐(Stephen)을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든다. 육체적 욕망을 추구한 죄를 고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해성사를 받는 스티븐을 향한 사제의 질문과 충고는 가톨릭이 얼마나 철저히 성적 쾌락의 추구를 죄악시하는지를 보여준다. 스티븐이 “불결의 죄”(sins of impurity)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자 늙은 신부는 추가적으로 스티븐에게 “혼자서인가,” “여자와 말인가?” 그리고 “기혼 여성인가?”라고 질문한다(P 121). 이것은 가톨릭에서 다른 남성 혹은 여성과의 성관계 뿐 아니라 자위행위도 죄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부는 육체적 욕구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를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로 규정할 뿐 아니라 “불명예스럽고 남자답지 못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톨릭이 설교와 고백을 통해 성적인 것은 수치스러운 죄라는 개념을 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122).

이미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조이스는 개인의 육체적 욕망을 금기시하고 죄악시하는 아일랜드 사회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순결과 도덕 그리고 점잖음 같은 개념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였다. 특히 그는 어떤 종류의 육체적 욕망도 죄로 규정하고, 고백을 통해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솔직하고 자유로운 남녀 관계를 막는 교회의

성 도덕관에 “차가운 경멸”을 퍼부었다(Stanislaus Joyce 155). 그의 여러 글에는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억누르는 이러한 ‘주의’(ism)에 대한 저항의식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신페인』지에서 그들은 여전히 넘쳐나는 “성병”을 비난하고 있다. . . . 어쨌든 내 의견은 내가 만약 내 영혼의 우물, 성(性)의 영역에 양동이를 드리우면 나의 물과 함께 그리피스, 입센, 스케핑톤, 버나드 본, 성 알로이시우스, 셸리 그리고 르낭의 물도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나의 소설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보기위해 앞서 언급한 그림자와 본질 앞에 그 양동이를 드리울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나는 순수한 남자와 순수한 여자 그리고 영적인 사랑과 영원한 사랑에 대해 지껄이는 거짓말이 역겹다: 진실의 면전에서 하는 뻔한 거짓말. (Letters 191-92)

이 글에서 조이스는 “순수한,” “영적” 그리고 “영원한”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 “성”을 죄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그리피스, 스케핑톤, 버나드 본은 각각 아일랜드 민족주의, 사회 순결 운동, 가톨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피스는 아일랜드의 태생적인 도덕적 순수성과 성적 순결을 주장하였다. 그가 편집자였던 『신페인』(*Sinn Féin*)지는 비도덕적인 영국에 의해 아일랜드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있음을 비난하는 글들을 게재하곤 하였다. 조이스의 친구이자 페미니스트인 스케핑톤은 사회적 순결을 위한 활동에 헌신한 인물이었으며, 김슨(Andrew Gibson)에 따르면 본 신부는 아일랜드 교회로 침투하는 빅토리아조 후기 청교도적 영국 가톨릭의 특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러 글과 설교에서 도덕성과 순결을 강조하였다(*Revenge* 83). 멀린(Katherine Mullin)은 조이스가 성의 문제에서 진보적인 입센이나 셸리 보다는 본 신부, 그리피스 그리고 스케핑톤과 같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면전에서 하는 뻔한 거짓말”의 책임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피스로 상징되는 민족주의, 본 신부의 종교, 그리고 스케핑톤의 사회 순결 단체는 모두 사회의 순결을 지향하며, “민족과 신앙의 경계를 초월하여” 성을 억압하고 있다(*Sexuality* 84). 그러나 조이스는 그리피스든 입센이든 사람의 “영혼의 우물”에는 모두 성적 욕망이 있을 것임을 단언하며, “성”이 직업이나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자연

스러운 에너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가 순결해야한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일랜드가 영국의 외설적인 문화로 인해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항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조이스가 『율리시스』에서 블룸(Bloom)이라는 남성을 통해 성의 영역을 다룸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성에 대해 억압적인 아일랜드 사회를 비판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성에 대하여 위선적이고 억압적인 아일랜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하여 블룸을 활용한다. 오쟁이(cuckold)지고 성적으로 무력한 블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것들을 공론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나우시카」(“Nausicaa”)에서 블룸의 자위행위를 중심부에 배치한 것이나¹⁾, 아내의 외도에 대한 대응으로 그녀에게 또 다른 남성을 소개시키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블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룸은 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아들 루디(Rudy)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성적인 무력감 속에 있다. 그는 “아기가 건강하면 그것은 어머니 덕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때문”(U 6.629)이라는 속설을 믿으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인 자신에게로 돌린다.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 블룸은 루디가 죽은 이후 십년 동안 부부관계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1) 조이스는 『율리시스』를 미국의 『리틀 리뷰』(The Little Review)에 연재하였다. 이 잡지의 편집장인 마가렛 앤더슨(Margaret Anderson)은 구독자 확보를 위해 무작위로 잡지를 배포하였고 한 소녀가 이 잡지의 7-8호를 잃게 된다. 이 호는 자위를 하는 블룸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거티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소녀는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마침 그녀의 아버지 앤소니 콤포스탁(Anthony Compstock)은 ‘악의 억제를 위한 뉴욕 협회’(The New York Society for the Suppression of Vice)의 사무총장이었고 그는 이 잡지사를 음란물 배포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 결과 「나우시카」가 어린 소녀들의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율리시스』는 음란한 저작물이라는 사유로 출판이 금지되었다.

오랜 부부 관계 단절은 아내 몰리(Molly)의 외도로 이어지고 이는 블룸이 더욱 더 절망적인 성적 좌절을 느끼게 만든다. 아내의 외도를 예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운명에 순응하는 듯한 블룸의 태도는 그의 무력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몰리와 그녀의 애인 보일런(Boylan)의 관계는 블룸의 가장으로서 지위 상실과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블룸에게 절망과 공포를 배가시킨다. 집 열쇠를 지니지 못한 블룸의 처지는 가정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블룸은 아침에 집을 나선 이후로 열쇠가 없는 상태로 하루 동안 더블린 시내를 배회한다. 블룸이 열쇠를 소유하지 않은 것은 보일런과 아내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가장으로서 지위가 상실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스틴(Mark Osteen)도 열쇠가 없는 블룸을 “자치권”을 강탈당한 아일랜드의 제유로 보고 있는데(81), 영국에게 주권을 빼앗긴 아일랜드처럼 블룸도 이방인인 보일런에게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으며 이것이 열쇠 없는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문의 사망 기사 아래 실린 플럼트리표(Plumtree's) 통조림 광고 문구 “플럼트리표 통조림 고기(Plumtree's Potted Meat)/ 그것이 없는 가정은 어떠할까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것이 있으면 축복 받은 가정이지.”(U 5.144-47)도 블룸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To pot one's meat’이 성교하다는 뜻의 속어임을 고려할 때, 이 광고는 고기 통조림에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각 가정에 플럼트리표 통조림 고기가 있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즉, 표면적 의미는 이 통조림 고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집안이 완전해지고 축복받는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이 없는 가정은 성교가 없는 가정처럼 불완전하고 축복받지 못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꼭 구입하라는 메시지가 깔려있다. 이 광고의 메시지에 따르면 십 년째 부부관계가 없는 블룸의 가정은 불완전하고 축복받지 못한 가정이며 보일런이 이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셈이 된다. 블룸은 가정의 온기와 아내의 따뜻한 육체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정의 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에게 더욱 깊은 좌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블룸은 자신만의 방식 즉,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타인(몰리)의 욕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아일랜드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억압적인 성 관습에 대한 저항이 되며 이것이 조이스

가 성적으로 무력한 불륨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종교는 인간의 성적 욕망을 짐승 같은 것,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지옥 불에서 고통 받게 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불륨은 성적 욕망을 영혼의 죽음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로 받아들인다. 엘만도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의 영혼이 꽃에 비유되었다면(*P* 125), 『율리시스』에서는 불륨의 성기가 꽃에 비유된 것에 주목하면서(*U* 5.572), 조이스가 한때 죄라고 여겨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던 성적 욕망들이 『율리시스』에서는 세속화되어 죄라기보다는 선호(preference)와 취향(fastidiousness)의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49). 『율리시스』에서 불륨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욕망을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삶 그리고 생명을 붙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을 다루는 「하데스」(“Hades”)에서 불륨은 묘지를 바라보며 죽음 자체보다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죽음의 속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생명은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육체에 깃들어 온기를 주는 생명이다. 가톨릭에서 욕망을 죽음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면 불륨은 이것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여긴다. 불륨은 우울함이 가득한 묘지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기운을 돋우어주는 활력 넘치는 묘지관리인 오코넬(O’Connell)의 건장한 체구에 주목하며, 죽음이 일상인 공동묘지 한 복판에서도 오코넬이 여덟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동시에 그는 죽음 혹은 유령에 대한 공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향락의 양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U* 6.759). 즉, 마치 굶주린 사람들이 구운 비프스테이크의 냄새에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살아있는 육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U* 6.760-61). 불륨은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며, 따뜻한 육체의 온기를 갈구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칼립소」(“Calypso”)에서 그가 태양을 가리는 구름을 보며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사해를 떠돌리고 길을 지나는 노파를 보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황폐한 “회색의 공포”(*U* 4.230)를 느꼈을 때, 물리의 풍만한 육체의 따뜻함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다시 온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육체는 불륨을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따라서 블룸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욕망과 성에 대한 가톨릭적 사고방식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자위행위는 모든 종류의 비생산적인 성 행위를 죄로 여기는 가톨릭에서 금기하는 것이었고(Brown 55), 20세기 초 성과학도 자위를 애초에 의도된 정신적·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소멸된 성적 에너지로 정의하면서 헛된 낭비로 여겼으므로(Gillis 612) 블룸의 자위행위는 이와 같은 사회적 관념에 대한 도전이 된다. 조이스가 「나우시카」에서 재생산에 중점을 두는 기독교 전통에 도전하여 개인의 만족을 위한 성 행위를 찬양하고 있다는 헨케(Henke)의 주장처럼, 블룸은 자위를 통해 만족감과 위로를 얻는다(86).

길리스(Gillis)는 조이스가 자위적 쾌락(autoerotic pleasure)을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형태의 성적 취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 아일랜드 문화에서 성(sexuality)과 남성성(masculinity)을 지배하는 엄격한 규범에 저항하는 전략의 토대로서 자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본다(612). 특히 「나우시카」에서 블룸은 자위행위를 통해 스스로 만족감과 위안을 얻을 뿐 아니라 그의 시선과 행위를 통해 거티(Gerty)의 욕망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블룸의 시선을 즐기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티는 여성에게 가정의 천사나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를 풍자하는 측면이 있다. 슈바르츠(Tracy Teets Schwarze)는 가정의 천사와 성모 마리아를 완벽한 아내, 순결한 어머니와 같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기는 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을 남성의 소유물과 다를 바 없이 여기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18-21). 따라서 성모마리아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당의 바로 옆 해변에서, 블룸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거티의 행위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나우시카」에서 조이스의 첫 번째 임무는 당시 여성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성모 마리아 신화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슈바르츠의 주장처럼(132), 블룸의 시선을 즐기는 거티는 순백의 정결하고 순종적인 가정의 천사 혹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능동적으로 표출한다. 그녀는 가정의 천사와 성모 마리아를 동경하고 그들을 닮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녀의 욕망은 순종적인 성녀의 이미지 속에 감춰지고 통제되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거티는 블룸을 통해 현

실에서 충족시킬 수 없었던 욕구를 표출한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블룸을 바라보며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더 나아가 “성모 마리아가 성관계 없이 아이를 가졌다면 여기서 거티는 아이가 생길 위험 없이 성 관계를” 함으로써 성모 마리아 신화를 조롱하고 전복시킨다(Kiberd 196).

이처럼 자위행위가 순결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 제스처인 한편, 블룸에게 이 행위는 위로와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가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하도록 만든다. 그는 자위행위 후 기분 좋은 나른함을 즐기며 하루를 되짚어본다. 오늘 블룸에게 여러 크고 작은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특히 그를 고통스럽게 한 사건 중 하나는 ‘키클롭스’ (“Cyclops”)의 바니 키어넌 술집(Barney Kiernan’s)에서 받은 모욕과 조롱 그리고 시민과의 언쟁이다. 그곳에서 블룸이 자신을 “외국인”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질타 때문에 좌절했다면, 지금은 바로 그 “외국인”같은 외모로 인해 거티와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일종의 대화”(U 13.944)를 나누고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는 좀 더 여유롭고 넓은 시각에서 바니 키어넌 술집에서의 언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유대인 블룸을 상처주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멸어린 “이스라엘 만세 삼창”(U 12.1791)이라는 시민(Citizen)의 외침에 대해서도 블룸은 자신의 말 때문에 시민이 흥분한 것일 뿐 자신을 상처 줄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시민을 용서한다. 그리고 그는 시민의 모욕과 겁박 때문에 도망치듯이 술집을 나왔지만 모욕감을 되새기며 상처받는 대신,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도 떨쳐낸다.

또한 블룸의 자위행위는 블룸이 몰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포용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심적 갈등 해소의 역할도 한다. 오늘 4시에 있었을 몰리와 보일런의 관계는 바니 키어넌 술집에서 받은 모욕보다 더욱 더 블룸을 고통스럽게 한다. 블룸은 절정에 이르고 난 후 계속해서 몰리를 떠올리는데, 그의 의식에서 몰리와 보일런의 육체적 관계 그리고 몰리와 자신의 행복했던 추억은 끊임없이 교차한다. 카이버드(Declan Kiberd)의 주장처럼 그는 이 시간을 몰리에게 돌아가는 연습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198).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블룸은 의식적으로 몰리와 보일런의 육체적 관계를 의미 없는 일로 바라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블룸은 홀레스(Holles) 가에 살던 시절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몰리의 빚을 팔아 10실링을 벌었던 때를 떠올리며 몰리와 보일런의 관계를 이 경험에 빗대어 이해해 보려고 한다. 즉, 돈이 필요하면 사용하던 빚을 팔기도 하는 것처럼 육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빗을 파는데 큰 괴로움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육체 관계를 하는 것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블룸은 남녀의 육체적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찌면 모두 편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다.

III

이처럼 블룸은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그는 또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물리의 욕망을 인정함으로써 물리와의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 조이스가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성적 순결과 재생산의 도구로서 성의 기능을 강조하는 아일랜드 사회 풍조를 비판하고 있다면,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파넬(Parnell)을 단죄한 아일랜드 가톨릭의 편협성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가톨릭은 도덕성을 문제 삼아 파넬을 몰락으로 이끄는 데 앞장섰다.²⁾ 조이스는 이 사건에 대하여 “그들[아일랜드 국민들]은 영국의 늑대들에게 파넬을 집어던지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가 그를 갈가리 찢어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CW 228), 또 아홉 살에 쓴 「힐리 너마저」(“Et tu, Healy”)라는 시에서는 “가톨릭 주교들의 분부대로” 비열한 행동을 해서 파넬을 배신한 파넬의 심복 힐리(Healy)를 비난하고 있다(Stanislaus Joyce 45). 이와 같은 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조이스는 파넬을 몰락시키는 과정에서 가톨릭 성직자들이 보여준 권위와 위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큰 반감을 느꼈다. 물리에게

2) 파넬은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인 윌리 오셰이 대위(Captain Willie O'Shea)와 결혼한 영국 출신의 캐더린 오셰이(Katharine O'Shea)와 열정적인 관계를 시작하였고 그들의 만남은 십년 동안 지속되었다. 둘의 동거는 공개된 비밀이었으나 오셰이 대위가 파넬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법정에서는 파넬과 캐더린이 주고받은 편지가 제시되고 신문과 잡지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그들의 간통 사건은 아일랜드 뿐 아니라 영국까지 퍼져나갔다. 파넬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가톨릭 교위층은 신중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나, 이혼판결이 공표된 후, 크로크(Croke)와 월쉬(Walsh)의 대주교는 지도자로서 파넬의 도덕성을 근거로 그가 정치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결국 파넬의 퇴진에 결정되었다.

보여주는 불륨의 관용의 태도는 이와 같은 가톨릭의 편협성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불륨은 물리의 부정에 대하여 아내의 청혼자들을 모두 살육한 오디세우스 (Odysseus)처럼 폭력으로 응대하지 않고 대신 “타인의 욕망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걸음 뒤로 물러난다”(Levin 636). 불륨의 이러한 관용은 물리와 보일런의 행위에 대하여 질투나 시기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서 엿보이기도 한다.

왜 질투보다는 자제가, 시기보다는 침착이 우세했는가?

폭력(결혼)으로부터 폭력(간통)에 이르기까지 폭력(교접) 이외의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결혼상으로 위반당한 자의 혼인 상의 위반자는 간통으로 위반당한 자의 간통상의 위반자에 의해 폭행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U 17.2195-99)

불륨은 여기에서 결혼도 폭력이고 간음도 폭력이며, 결혼과 간음 사이에 일어난 모든 성행위도 오직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보일런과 물리의 간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결혼, 부부관계, 간음 등 이 모든 것이 동등하게 폭력이므로 물리의 간음이 배반 혹은 신의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러나” 이후 문장의 “혼인 상의 위반자”(the matrimonial violator), “혼인 상으로 위반당한 자”(the matrimonially violated), “간통상의 위반자”(the adulterous violator), 그리고 “간통으로 위반당한 자”(the adulterously violated)가 각각 누구와 대응되는지 모호하긴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을 혼인상의 약속 위반으로 본다면 “혼인 상의 위반자”는 불륨이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불륨이 “간통상의 위반자”인 보일런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물리와 보일런의 간음으로 인해 불륨이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질투보다는 자제를 시기보다는 침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에 이는 물리가 행한 외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는 불륨의 의식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불륨의 관용이 상징적으로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장면은 침실로 돌아온 불륨이 자신의 침상에서 보일런의 흔적을 치우고 자리에 눕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베개를 침대 머리맡에서 발치로 옮겨 놓고 잠자리에 드는데, 깨끗한 새 침대보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성의 “인간 형체의 흔적”과 몇 개의 빵 조각

그리고 “통조림 저린 고기 몇 조각”(U 17.2123-25)을 발견한다. 통조림의 광고 문안에 따르자면, 보일런이 블룸의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준 것이며, 그동안 짐작하기만 했던 물리와 보일런의 육체적 관계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블룸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통조림 고기 조각들을 침대에서 털어낸다. 시카리(Stephen Sicari)는 이를 블룸의 “비범한 행동”(extraordinary act)이라고 평하며, 오늘 하루 동안 나약함의 징후였던 그의 수동성이 엄청난 높이로 승격되었다고 평가한다(286).

또한 블룸은 도덕적, 감정적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물리와 보일런의 육체관계를 자연스러운 행위 또는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이타카」(“Ithaca”)에서 블룸은 물리의 침상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약 25명의 이름을 거론한다. 그 명단에는 그녀의 첫사랑 멀비(Mulvey)부터 버나드 코리건 신부(Father Bernard Corrigan), 어떤 농부, 더블린 시장, 미지의 신사, 돌라드(Dollard), 스티븐의 아버지 사이먼(Simon), 구두닦이 그리고 보일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물리가 이들 모두와 실제로 육체적 행위를 하였을 리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가 말하는 간음의 정의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예수는 실제 육체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Gifford 603). 만약 이 25명의 사람들이 물리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였다면 그들은 물리와 간음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간음은 이미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블룸이 보일런과 물리의 육체적 간음 행위에 특별한 무게를 둘 이유가 없어진다.

이와 더불어 블룸은 물리와 보일런의 성행위를 묘사할 때 마치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이라든가 배신이라는 의미를 배제한 일종의 과학적 사실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는 보일런의 활동을 “인간의 정력적인 교점 및 정력적인 피스톤과 실린더 운동의 상위 자세에 특별히 적용되는 육체적 및 정신적”행위로, 그리고 물리의 행동은 보일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만일 욕망 한다면, 환희의 증감을 가져오는” “끊임없는 확장 및 수축”(U 17.2167-68)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침착”(Equanimity)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천부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적 행위처럼 자연적인”(U 17.2177-78)것임을 상기한다. 블룸은 이들의 행동을 “유성의 대격변적 절멸”(U 17.2181)처럼 처참

한 것도 아니고, 절도나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처럼 위중한 범죄도 아니며, 생존하기 위해 적응하는 여러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U 17.2194) 자연현상의 한 종류일 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몰리의 간통을 대하는 블룸의 방식은 전에 없이 새로운 것이지만, 블룸이 보일런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택한 방식은 더욱 파격적이다. 그것은 사랑을 정절과 동일시하는 편집증적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아일랜드 사회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 블룸이 몰리에게 시행한 유일한 행동은 “경쟁의 준비”(Levin 647) 즉, 몰리에게 “연애의 경쟁 대리자”(U 17.2207-08)로 스티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보이지만 유텔(Janine Utell)의 설명을 빌리자면, 조이스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절과 충실을 사랑의 강도로 여기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간통은 완벽한 일체가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블룸이 몰리의 간통을 단죄하지 않고, 보일런 보다 훌륭한 자질을 지닌 스티븐을 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가 정절을 사랑의 강도로 여기는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블룸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준 것은 파넬과 캐더린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블룸은 몰리와와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파넬을 몰락으로 이끈 가톨릭과 억압적인 도덕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저항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블룸은 파넬과 자신 그리고 몰리와 캐더린을 동일시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에우마이오스」(“Eumaeus”)의 역마차 오두막(Cabman’s shelter)에서 파넬과 캐더린의 간통 사건을 바라보는 블룸의 관점은 파넬을 비난하는 사람들 특히 가톨릭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역마차 오두막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캐더린을 파넬을 망친 “영국의 창녀”(U 16.1352)라고 비난하며 파넬과 캐더린의 관계를 웃음거리로 만들지만, 블룸은 그들의 웃음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는 이 사건이 파넬의 몰락을 초래할 만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던 악질적인 자들에 의해 이용된 “타르 통 같은 사건”(a case of tarbarrels)(U 16.1308)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넬을 이용하려는 세력들과 돈벌이를 위해 원색적인 기사를 써대는 주간 잡지로 인해 파넬과 캐더린을 화형 시키기라도 할 듯한 거센 비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블룸은 법률상의 남편이 간통의 사실을 알게 되지 않는 한 남녀 간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사건”일 뿐, 다

른 사람들이 이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U 16.1533-34).

그가 이처럼 다른 이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유는 파넬과 캐더린의 관계에서 자신과 물리를 발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역마차 오두막에서 한 이탈리아인이 칼로 사람을 찔렀던 일화를 듣고 블룸은 스티븐에게 그러한 일은 “정열적 기질”(U 16.873)로 인해 발생하며 그 기질은 “기후”(U 16.876)로 인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블룸은 뜨거운 기후가 사람을 정열적인 기질로 만든다고 확신하면서, 물리가 스페인 태생임을 강조하는데, 그는 캐더린도 “남국의 정열적인 방종을 띤” 스페인 태생임을 떠올리며 이점을 강조해서 말하기도 한다(U 16.1409-10). 그는 두 여인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마치 그들의 타고난 기질, 정열적 성향으로 그들의 간통행위가 명백히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는 파넬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파넬을 예수처럼 배신당한 인물로 여기고 그의 몰락에 분노했던 조이스처럼, 그리고 파넬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클롱고우즈 우드(Clongowes Wood) 기숙학교의 꼬마 스티븐처럼, 블룸도 캐더린의 남편이 아닌 파넬의 입장에서 그들(파넬과 캐더린)의 관계를 바라본다. 블룸은 물리의 간통으로 인해 가장으로서 자신의 자리가 상실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파넬의 처지에 빗대어 본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파넬이 어딘가에 살아 있어 독립을 위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역마차 오두막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파넬의 귀국”(U 16.1298)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파넬이 돌아와 다시 한 번 아일랜드를 위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지만, 블룸은 “모든 것이 시대와 함께 언제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곳에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느낄 것” 이므로 되돌아가는 것은 현명치 못한 행동이라고 여긴다(U 16.1403). 이것은 블룸이 물리의 간통 후 집으로 돌아가서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아일랜드로 귀국한 파넬의 상황에 비추어 표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블룸은 파넬의 사랑과 자신의 것을 비교해보기도 한다. 블룸은 파넬이 “천부의 재능”(U 16.1389)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자신과 파넬을 동일시한다. 그는 파넬이 캐더린을 사랑한 만큼 자신도 물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파넬에게 동지애를 느낀다. 그리고 그는 만일 부부에게 제 삼자가 우연히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참된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그녀가 비록 잘못된 여파에 휩쓸

렸지만, 애정으로 그가 그녀를 대한다면 그 일은 절대적으로 그들 부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답한다(U 16.1385-88). 비록 부인이 간음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 이전에 부부간의 애정이 있었다면 그 애정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스티븐과 대화도중 갑자기 그에게 물리의 사진을 보여주는 블룸의 의도는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제 삼자가 끼어드는 일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그의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다. 블룸이 스티븐에게 보여준 사진 속 물리는 “육체적인 매력을 환히 드러내고 유방이 한층 잘 보이도록, 앞가슴을 자유로이 노출시켜 화려하게도 이것 보라는 듯이 목이 깊이 팬 야회복 차림”(U 16.1429-31)으로 피아노 옆에 서 있다. 그는 스티븐이 사진 속 물리의 자태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그러고는 자신도 물리의 “약간 더럽혀진 사진”을 보며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꼭 참고 앉아서, 풍만한 곡선에 의해 주름진, 약간 더럽혀진 사진을 태연히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리하여 그녀의 성숙하고 ‘풍만한 육체’의 균형미를 평가하고 있는 동안 있을지도 모를 상대방의 당황함을 더 이상 증대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의도로 눈길을 심각하게 다른 데로 돌렸다. 사실상 약간 더럽혀졌다는 것은, 약간 더럽혀진 리넨의 경우처럼 새것과 마찬가지로, 풀기가 빠지면 사실상 훨씬 더 나은 것과 같이, 오직 매력을 더해 줄 뿐이었다. (U 16.1464-70)

블룸은 때 묻은 물리의 사진을 보며 약간 더럽혀진 리넨을 떠올린다. 막 풀을 먹인 새 리넨이 약간의 오염물이 묻었다고 해서 험한 것이 되는 것도 더 이상 리넨이 아닌 것도 아니다. 오히려 뽀뽀하고 서걱한 풀기가 빠져 부드러운 감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물리가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그녀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블룸은 물리에 대한 애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 삼자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결혼 생활이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스티븐에게 물리의 사진을 보여주고 충분히 음미할 시간을 주는 것은 스티븐과 물리를 서로에게 소개시키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지만 상대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스티븐을 몰리에게 소개시킴으로써 그는 몰리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사회법을 뛰어넘는 도덕적 결합이라고 믿었던 파넬처럼, 블룸은 그의 선택이 비관습적일지라도 매우 윤리적이고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Utell 121). 이러한 조이스의 발상은 당시 가톨릭이 추구하는 육체적 순결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블룸은 스티븐을 보일런의 “연애의 경쟁 대리자”로 만들기 위해 몰리에게 스티븐의 재능을 칭찬하면서 보일런 보다 스티븐이 그녀에게 더 알맞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은근히 불어 넣는다. 이와 같은 블룸의 방식에 대한 몰리의 반응은 「페넬로페」(“Penelope”)에서 그녀의 독백을 통해 나타난다. 그녀는 잘생기고 젊은 시인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근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티븐과의 만남을 상상해본다. 스티븐과 자신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가 자신에 관한 시를 쓰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가 유명해지면 “애인으로서 그리고 공공연한 정부(mistress)로서”(U 18.1364-65) 둘의 사진이 신문지상에 실리는 것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블룸의 계획대로 몰리는 스티븐과 보일런을 비교하면서 보일런을 예의 없고 세련미도 없는 “시와 양배추도 구별 못하는 무식한 사람”(U 18.1370-71)으로 여긴다. 레빈은 블룸이 그녀를 처벌하는 대신 이 같은 환상을 조장함으로써 그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647).

IV

조이스가 아일랜드 문화에서 결핍되어 있는 요소와 아일랜드의 지향점을 블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김슨의 설명처럼(*James Joyce* 125),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경직된 성도덕을 비판하기 위해 블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성적으로 무력하고 오쟁이진 남자인 블룸을 주인공으로 선정함으로써 성의 영역을 작품의 전면에 배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춰진 문제들을 드러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일랜드 사회가 지닌 억압적이고 편협한 속성에 저항한다. 비록 블룸이 성적으로 무력하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상황을 견뎌나가는 방식은 능동적이며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도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가 주

장하는 ‘사랑’은 교회가 말하는 “순수한 남자와 순수한 여자 그리고 영적인 사랑과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대한 욕망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경험은 육체적 욕망 추구가 죄악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과 에너지를 줄 수 있음을 그리고 ‘사랑’이란 도덕이나 정절을 조건으로 하여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리를 위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여인에 관한 내용의 책인 『죄의 쾌락』(*Sweets of Sin*)을 선택하는 블룸의 행동은 그가 “자신의 욕망보다 물리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DeVault 147). 이와 더불어 물리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더블린에서 가장 나쁜 남자”(U 6.202)인 보일런 보다 물리에게 더 어울리는 남자를 제안하는 그의 선택은 도덕성을 근거로 파넬을 파멸시킨 가톨릭에 대한 조이스의 저항이자 개인의 욕망 특히 육체적 욕망을 부인하고 금지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의 가치 있는 성생활을 억압하는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

인용문헌

- Brown, Richard.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UP, 1985.
- DeVault, Christopher. *Joyce's Love Stories*. Ashgate, 2013.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ised ed., Oxford UP, 1982.
- Gibson, Andrew. *Joyce's Revenge: History, Politics, and Aesthetics in Ulysses*. Oxford UP, 2005.
- _____. *James Joyce*. Reaktion, 2006.
- Gifford, Don, and Robert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2nd ed., U of California P, 1988.
- Gillis, Colin. "James Joyce and the Masturbating Boy." *JJQ*, vol. 50, no. 3, 2013, pp. 611-34.
- Henke, Suzette A. "Joyce's Naughty Nausicaa: Gerty MacDowell Refashioned." *Papers on Joyce*, vol. 10, no. 11, 2004-2005, pp. 85-103.
- Joyce, James.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Vantage, 1986. Abbreviated as *U*.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ited by Jeri Johnson, Oxford UP, 2000. Abbreviated as *P*.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ited by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Viking, 1959. Abbreviated as *CW*.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 Edited by Richard Ellmann, Viking, 1966.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James Joyce's Early Years*. Edited by Richard Ellmann, Viking, 1958.
- Kiberd, Declan. *Ulysses and Us: The Art of Everyday Life in Joyce's Masterpiece*. Norton, 2010.
- Levin, Janina. "Empathy, Cuckoldry, and the Helper's Vicarious Imagination in *Ulysses*." *JJQ*, vol. 50, no. 3, 2013, pp. 635-54.
- Mullin, Katherine. "English Vice and Irish Vigilance: The Nationality of Obscenity in *Ulysses*." *Joyce, Ireland, Britain*, edited by Andrew Gibson and Len Platt, UP of Florida, 2006, pp. 68-82.

- _____. *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 Cambridge UP, 2003.
- Osteen, Mark. *The Economy of Ulysses: Making Both Ends Meet*. Syracuse UP, 1995.
- Schwarze, Tracy Teets. *Joyce and the Victorians*. UP of Florida, 2002.
- Sicari, Stephen. "Rereading *Ulysses*: 'Ithaca' and Modernist Allegory."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43, no. 3, 1997, pp. 264-90.
- Utell, Janine. *James Joyce and the Revolt of Love: Marriage, Adultery, Desire*. Palgrave Macmillan, 2010.

Abstract**Joyce's Criticism of Irish Sexual Morality through
the Pursuit of Bloom's Desire**

Eunhey Kim

Nationalism, the Social Purity Movement, and the Church have a long history of influencing sexuality in Ireland. Joyce criticizes these oppressive forces on sexuality by using Bloom, the cuckold, who is suffering from sexual frustration and trying to overcome it. Bloom has not slept with his wife, Molly, for ten years following the death of their son, and she is about to satisfy her sexual desire with Boylan. Joyce focuses on Bloom's frustration, because the ways in which he deals with his frustration can be viewed as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Irish society, which overemphasizes purity and fidelity. Bloom values sexual desire as an essential tool for life. He masturbates to fulfill his sexual desire, which can be a challenge to Christian tradition. Furthermore, he does not punish Molly for her adultery, but treats her with generosity. After getting inspiration from the case of Parnell and O'Shea, he realizes that real love is to step back to allow another person's desire. By doing so, unlike the Catholic church which brought down Parnell by reason of morality, Bloom seems to demonstrate that human sexuality is not sinful but natural. In this way, Joyce not only reveals the narrow-minded views of Irish society, but criticizes the various kinds of oppressive force which suppress valuable sexual desire in Ireland.

■ Key words : Joyce, Bloom, sexual desire, purity, resistance, masturbation,
Parnell
(조이스, 블룸, 성적 욕망, 순결, 저항, 수음, 파넬)

논문접수: 2016년 11월 15일

논문심사: 2016년 12월 15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6일